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8월 31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도시계획과	담 당 자	• 도시정책팀장 김도연 ☎440-4601 • 담당자 장선정 ☎440-460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도시의 내적·질적 성장 통해 초일류 도시 꿈꾼다
- 31일, 2023년도 도시녹지분야 예산 토론회 개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은 31일 참여예산지원센터에서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도시녹지분야 시민참여 예산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토론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병행한 이날 토론회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들에게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마련됐다. 도시계획·도시재생·공원녹지·주거복지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열띤 토론을 했다.

내년도 도시녹지분야 예산의 핵심은 도시의 내적·질적 성장이다.

인천시는 도시의 물리적 확장이 아닌 내적 성장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균형발전적인 도시공간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재해·재난 예방적 차원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선제적인 안전점검 지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지속적인 운영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및 빈집정비를 통해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자연을 닮은 친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 도시 바람길숲과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될 예정이며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숲, 자연안심 그린 숲과 ▲실내정원, 벽면 녹화 등의 생활 속 다양한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원도심 기반시설 및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확충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점·선·면 단위의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인천숲길 조성사업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는 재생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들이 주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을 통해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점차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더해져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를 향한 균형, 소통, 창조가 융합된 사업을 우선 추진예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시민의 눈높이에서 계획하는 도시계획시설과 공간정보 구축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창조 되는 캠프마켓 활용 사업이 대상이 된다.

또한,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주거복지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광역 주거복지센

터를 운영하고,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사업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쾌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의 시스템 안정화와 이용 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도시녹지분과 송용섭 위원장이 진행을 맡았고, 권윤정 주민참여예산 도시녹지분과위원, 박미진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권전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장, 고태호 LH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도시계획, 도시재생, 공원녹지, 주거복지의 4개 분야에 대해 제안했다. 그 밖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과장은 “전문가,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시정을 공유하고 민선8기 정책방향에 맞는 새로운 인천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뜻깊은 자리”라며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